

보도시점 2023. 10. 23.(월) 08:00 배포 2023. 10. 23.(월) 08:00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와 ‘저작권 범죄분석실’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치밀하게 수사한다

-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기존 수사팀을 분야별 4개 팀으로 개편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 출범, 수사역량 전문화·효율화
-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합동으로 ‘저작권 범죄분석실’ 신설, 과학수사 역량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0월 23일(월),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해 국제화·지능화 되고 있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한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사역량을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팀을 4개 수사팀으로 개편하고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 기반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문체부는 최근 1년간 불법 웹소설 유통 사이트인 ‘제주커피’, ‘카카영’, ‘바다닷컴’을 수사해 운영자 4명과 업로더 8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한 ▲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인 비티브이(BeeTV)를 운영해 무단으로 방송을 송출한 일당 3명, ▲비트토렌트 코인 채굴을 위해 국내 방송과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영상물을 토렌트로 공유한 헤비업로더 1명, ▲국내 웹하드 17개에서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공유해 1억 3천7백만 원의 수익을 올린 헤비업로더 1명을 검거하는 등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범죄 양상은 점차 해외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스트리밍 방식으로 변하고 있어 저작권 범죄 수사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 폐쇄된 ‘누누티비’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는 가상회선(VPN) 우회 기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기술 등을 활용하고 텔레그램 등 사적 경로를 통해 은밀하게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원격서버 사용, 차명계좌, 대리수행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피의자 검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 출범으로 분야별 전문 수사역량 강화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수사팀을 기획 수사 전담, 국제공조, 국내 범죄, 수사 지원 4개 팀으로 개편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한다. 이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중 세 번째 전략인 ‘과학수사 확대(Science)’ 과제 중 하나이다.

구 분	역할 및 주요 업무
기획수사전담팀	- 법집행기관 협력 ‘중점사이트’ 선정·집중수사 - 경찰청,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합동 수사 - 디지털포렌식(범죄분석실) 및 범죄분석 특별전담팀(TF) 운영
국제공조수사팀	-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해외 수사기관 협력 및 공조수사 - 국제공조 세미나 개최 및 네트워크 형성
국내범죄수사팀	- 국내 사이트·웹하드·토렌트 전담수사 대응 - 고소·배당 기획사건 수사 - 저작권 침해 구제 절차 안내 등 수사 상담
수사지원팀	- 기술자문단,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양해각서(MOU) 추진, 저작권 전문경찰, 범죄분석실 구축·운영,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 교육, 수사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이번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 출범으로 국내·국외 수사와 기획·고소 사건 수사, 수사 지원 업무를 세분화함으로써 ‘누누티비’ 등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콘텐츠 분야별 전문 수사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획수사전담팀은 저작권 범죄 수사·조사 업무 담당 기간이 평균 6.8년으로, 15년의 저작권 범죄 수사경력을 갖춘 수사팀장과 최고의 사이버 수사 역량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춘 전문인력 5명으로 구성했다.

‘저작권 범죄분석실’ 신설로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체계적인 증거물 분석

아울러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내에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신설, 운영한다. 최신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와 증거물 복제·분석 장비, 워크스테이션을 도입하는 등 첨단 범죄 수사를 위한 장비도 확충했다.

‘누누티비’ 사이트 폐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번에 신설된 ‘저작권 범죄분석실’은 지금까지 압수물 분석에만 의존하던 수사 상황을 극복하고, 저작권 경찰과 포렌식 전문가가 합동으로 불법 사이트와 유통경로를 사전에 조사·분석함으로써 신속하고 밀도 있는 수사와 포렌식 분석, 디지털 증거물 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뒷받침한다.

또한 ‘저작권 범죄분석실’은 저작권 범죄 사이트 사전분석, 문체부와 보호원의 합동 수사전략 수립뿐 아니라 국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회의, 저작권 전문경찰 회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24년 상반기에는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박사급의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앞으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와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통해 급변하고 지능화하는 저작권 침해를 치밀하게 수사해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	책임자	과장	윤용한 (044-203-2491)
		담당자	사무관	한승호 (044-203-2496)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
지정책브리핑

